



고영을 김왕복 김영수 박인화 박표진 양형일 윤봉근 장휘국 정희곤

■ 불붙은 광주시교육감 선거 ... 출사표로 본 쟁점

장 “학력 이상없다” 주장에 타 후보 집중 포화

단일화-당위성에 공감, 방법은 제각각

정체성-“광주엔 보수 없다...우린 진보·중도”

광주시교육감 선거 입지자들이 대부분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 전에 불이 붙었다.

출마 예정자는 장휘국 현 교육감을 비롯해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 김승 전 서부교육장,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박표진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정희곤 광주시의원 등 10명이다.

이 중 8명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 장 교육감도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재선도전 의지를 강하게

내보냈다.

현직 교장인 김승 전 교육장을 빼면 사실상 입지자 모두가 ‘팀’에 오른 것이다.

입지자들이 예상보다 출마선언을 서두른 것은 설병절 기간 여론확산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명절 때 이동을 이용한 입소문 전략인 것이다. 또 설 특집으로 일부 언론사가 기획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에도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오는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선 1기에 대한 평가와 이념 논쟁 등 격전이 예상된다.

입지자들의 출사표를 분석한 결과

▲후보 단일화 ▲학력 저하 ▲교육지표 하락 ▲학교 자율권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후보 단일화 문제는 2~4월 선거 초·중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교조나 비전교조 진영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한 후보단일화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서는 제각각이다.

전교조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장휘국·정희곤·윤봉근 등 전교조 출신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 휘국 3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단일화 방법에서는 장 교육감 측은 재추대론을, 윤 의원 측은 장휘국 필패론을, 정 의원 측은 공개토론을 통한 후보 경선론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의견집근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비전교조 측도 마찬가지다. 단일화 실패로 후보가 난립할 경우 조직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장 교육감을

이길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학력 저하에 대한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출마 선언을 한 8명의 입지자가 공통으로 수는 1·2등급 하락, 학업성취도 추락 등을 따지자, 장 교육감이 “광주의 학력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불붙었다.

이에 대해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휘국·정희곤·윤봉근 등 전교조 출신은 “수는·학업성취도 평가 등 객관적 수치가 학력 저하를 보여주고 있다”며 “광주교육에 대한 불만·불신 탓에 중학교 졸업생들의 역의 유출이 야기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윤봉근 광주시의원도 “대다수 학부모·시민들이 학력 저하를 불안해 한다”며 교육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장 교육감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민선1기 3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장 교육감은 “광주교육의 큰 골줄기를 바꿨다”며 혁신학교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불통·불신·불공정’ 등을 제기했다. 장 교육감이 특정단체와 이념에 갇혀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에만 사로잡혔다는 지적이다.

정체성 공방도 뜨겁다. 전교조 진영이 ‘진보’와 ‘보수’로 이분화해 진보를 독점하려하자 비 전교조 측이 “광주엔 보수가 없다”며 보수 딱지를 거부했다. 대부분의 입지자들은 “합리적 진보, 중도 개혁 성향”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육감 선거, 공영제·투표용지 개선을”

교총·전교조 ‘5대 요구사항’ 주장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문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수호와 정당화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밝혔다. 양 기관은 우선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당시 교육감 후보는 교육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들은 이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부터 사라지는 각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교육위원 수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한다면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투표용지는 추첨을 통해 세로로 배열하는 현행 방식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균등하게 배열하는 ‘교호순번제’ 적용을 제안했다. 교호순번제란 후보자가 3명이면 이름 배열을 번갈아가며 달리 적어넣은 세 종류의 투표용지(갑-을-병, 을-병-갑, 병-갑-을)를 같은 수로 혼합해 배부하는 방식이다.

유·초·중등 교원이 대학교원처럼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때 교직을 사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장도 했다.

안 회장은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서 교육감·교육의원 제도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올바른 교육자치 제도를 정립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것인데 정개특위가 교육자치를 정치권의 불순물 정도로 여기는 현상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연협뉴스



U대회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16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전국대학생 대표단 홍보대사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U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최현해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올 2조7000억 규모 사업 발주

전남도는 올해 장성 북하~도계 간 국가지원확보장공사(330억원) 등 도와 일선 시·군에서 2조7000억 규모의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16일 전남도는 “올해 발주하게 될 사업 가운데 분청 자체 발주 사업은 948건에 4154억원, 22개 시·군은 1만795건에 2조2883억원이다”고 밝혔다. 이 중 건당 1000만원 이상 사업은 모두 1만1743건에 달한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기자 노트

맥쿼리가 광주서 떠나야 하는 이유

지난해 초 광주시는 서울시로 부터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시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구조 변경 등을 놓고 투자회사인 맥쿼리와 법정 다툼(1심)을 벌여 승소한 직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맥쿼리측이 적자 등을 이유로 서울지하철(9호선) 요금을 50%나 인상하겠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이 분노한 이유는, 맥쿼리측이 9호선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자본구조 변경 등을 통해서 스스로 적자를 만들어 적자 보전액을 받은 데 이어 ‘시민의 발’을 불모로 요근까지 인상하려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사정을 접한 광주시는 맥쿼리와 관련된 소송 자료를 제공했고, 같은 해 10월 맥쿼리가 지하철 9호선 운영에서 손을 떼는 단초가 됐다. 맥쿼리 자본의 행태에 분노한 서울시민의 비난 여론도 큰 힘이 됐다. 서울시는 맥쿼리를 쫓아낸 덕분에 재정보조금도 5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줄어 최대 3조1929억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됐다고 한다.

광주시도 서울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털리고 있다. 맥쿼리의 투자방식은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도로 등 SOC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십 년간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다. 이후 운영회사를 일부러 적자로 만든 뒤 ‘운영비가 없다’며 사실상 같은 회사

에서 최대 20%에 이르는 고급리의 돈을 빌려쓰게 한다.

보장 수익은 물론 이자수입까지 이종으로 챙기는 방식이다. 수익은 당연히 주주들이 챙긴다.

주주에게 수익을 몰아준다 보니 이익은 나지 않게 되고, 법인세도 피해질 수 있게 된다. 물론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처럼 적자 등을 이유로 하이패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하지 않는다.

여차피 적자가 나면 광주시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데 괜히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이윤객만 증가해 봤자, 되레 도로 관리만 힘들어질 뿐이다.

예산이 부족해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곳간 사정이라, 제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나쁜 심보다. 일부에선 맥쿼리를 두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도 하지만, 현대의 사기꾼인 김선달이 들으면 되레 화를 낼 일이다.

광주는 예부터 거대 권력이나 세력,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지역성이 유독 강한 곳이다.

요즘 ‘나쁜 자본’인 맥쿼리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다며 퇴출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말이 허언이 아닌 이유다.

‘민간자본의 특성상 수익이 우선’이라는 맥쿼리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아끼고 지킬 수 있도록 순환도로 1구간을 넘겨달라’는 광주시의 주장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떠날 때를 아는 것도 투자자의 정성이 아니겠는가. /lucky@kwangju.co.kr



박진표 정치부기자

창조포럼, 내일 ‘광주 경제 평가와 전망’ 토론회

(사)창조포럼은 18일 오후 3시 광주 국제교류협력센터에서 500여명의 시민과 회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지역경제 평가와 전망’ 제1차 경제산업분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일태 전남대 교수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광주 공동체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하며, 김봉진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광주지역 가계소득·복지현황과 시사점’,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의 ‘광주 무역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창조포럼은 이날 가계·복지·금융·무역 분야에 이어 다음 토론회에서는 고용·성장·산업·기술 분야를 주제로 광주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최권일기자 cki@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062) 651-6581 / 010-3690-7790

나주 혁신도시·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컵속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 양동지점: 362-6164 / 전화: 각화지점: 268-6163 / 풍암금호지점: 651-6167 / 광주광역시 서구 한빛로 246번길 3